

‘추악한 전쟁’의 상흔: 실종자 문제와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

박구병(서울대)**

- I. 들어가는 말
- II. 실종자 문제와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활동
- III.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과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분열
- IV. 망각에 맞선 기억의 투쟁
- V. 맺는 말

우리 투쟁에 유일한 패배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표어 중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
- 국립 5·18 묘지 ‘역사의 문’ 사진 전시실 입구의 글 중에서

I. 들어가는 말

1976년 3월 24일부터 1983년 중반까지 지속된 ‘추악한 전쟁’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군, 경찰, 정보기관, 그리고 극우 성향의 <아르헨티나 반공동맹>이 ‘불순분자’로 지목된 청년층과 노동자들에게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072-AL2001)

** Koo-Byoung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zapata@freechal.com), “The Trauma of Dirty War: The Disappeared and the Struggle of *Madres de Plaza de Mayo* in Argentina.”

1) 후안 페론의 비서 출신으로 반유대주의 성향을 지녔던 호세 로페스 레가(José Lopéz Rega)가 이끈 <아르헨티나 반공동맹>(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 일명 AAA)은

납치, 구타, 고문, 암살, 폭탄 테러, 재산 강탈, 영·유아 탈취와 강제 입양 같은 조직적인 탄압을 가했다. 군부의 ‘추악한 전쟁’은 결국 1983년 12월 10일 민선정부가 들어선 뒤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CONADEP)의 활동과 이어 벌어진 인권재판을 통해 공식적인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군 장교들의 반발과 쿠데타 시도, 악화일로의 경제 사정 때문에 라울 알폰신 정부의 공식적인 청산 작업은 피해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납치와 학살 관련자들은 1986년 기소종결법(Punto Final)과 1987년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Obediencia Debida)을 통해 대부분 방면되었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봉착한 알폰신 대통령은 임기 종료 6개월을 남겨 놓은 채 1989년 6월 퇴진하고 말았다. 후임자인 카를로스 메넬 대통령은 면책관행이나 폭넓은 사면을 통해 가해자인 군부와 유화적인 타협을 모색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되면서 애당초 민선정부가 해결하려던 주요 과제들이 유산(流産)되고 말았다. 특히 실종자(desaparecidos) 문제는 ‘추악한 전쟁’이 남긴 가장 뚜렷한 상흔으로서 핵심적인 규명 과제였으나 중도좌파 계열의 정부가 집권해 과거사청산 문제를 재론하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수많은 실종자를 낳은 ‘추악한 전쟁’은 그 무차별성 때문에 더욱 악명을 떨쳤다(Femenía 1987, 10, 14). 무차별적인 국가 폭력은 전통적으로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실종자 가족, 특히 어머니들을 투쟁 대열로 이끌었다. 실종자의 어머니들은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이하 어머니회로 약칭)를 조직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추악한 전쟁’에 저항하는 어머니회의 활동을 통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독립기념 광장은 집단적 기억을 강화하는 기념비적 투쟁의 터전으로서 전 세계에 아르헨티나 현대사의 곡절을 상징하는

1976년 3월 24일 군부 쿠데타 이전부터 악명을 떨친 극우 준군사단체였다. 레가는 ‘팜파의 라스푸친’이라 불릴 정도로 불가사의한 인물이었으며 그의 조직은 연방 경찰장 알베르토 비야르의 지휘 계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Andersen 1993, 112-115).

장소가 되었다. 1977년 4월 어느 누구도 억압적인 군부 통치에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시절에 조직되어 현재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부상한 어머니회의 발자취는 공식적인 청산 작업 뒤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머니회는 실종자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점차 타협과 망각의 길에 들어선 비극적인 과거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임을 역설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우선 실종자 문제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공포와 침묵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오월광장 어머니회>로 대표되는 저항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단체가 ‘추악한 전쟁’의 피해자로서만 아니라 폭넓은 인권향상을 위한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한 과정, 그리고 그 활동이 아르헨티나 과거사청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민주화 이행기에 나타난 망각의 관성과 그에 맞선 기억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양자 간의 충돌 지점이 어디였는지 추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발굴 작업, 기념 행위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의 수용을 둘러싸고 1980년대 중반 어머니회 내부에서 벌어진 분열 양상을 검토하면서 ‘추악한 전쟁’의 비극을 둘러싸고 민주화 이행기에 아르헨티나가 겪은 갈등의 단면에 주목할 것이다.

II. 실종자 문제와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활동

아르헨티나 인들은 ‘추악한 전쟁’ 중에서도 특히 1976년 3월부터 1979년 9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억압적인 시절을 겪었다. 군부 통치자들은 게릴라 대원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에 접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가톨릭 신자, 사회주의자, 페론주의자, 인권단체 활동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군사통치 위원회(Junta militar)의 초대 대통령 비델라(Jorge R.

Videla) 장군은 “총이나 폭탄을 갖고 있는 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식 생활양식과 서구 기독교 문명에 반대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자” 모두를 ‘불순테러분자’로 지목했다(Simpson and Bennett 1985, 76; Pion-Berlin & Lopez 1991, 79; Feitlowitz 1998, 24). 해군 제독 마세라(Emilio Eduardo Massera)는 시중일관 군사통치 위원회가 “서구적, 기독교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좌익 무장 세력과 일대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시각에서 군부 세력은 고문, 살인, 실종에 관련된 행위를 “극좌 테러분자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이며 “공산주의, 체 게바라 노선, 그리고 비기독교적 생활양식으로부터 아르헨티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탄압은 우리가 아르헨티나 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소수에게만 가해졌다”고 정당화했다(Feitlowitz 1998, 24).²⁾

아르헨티나에서 좌익 세력의 폭력적 위협이 심각했다는 군부의 주장은 1976년 3월의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귀결되었다.³⁾ 그들에 따르면 군부의 권력 장악은 불순분자들을 진압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페론 정부를 정당하게 대체한 것이었다(Hodges 1991, 172). 그렇지만 군부의 전면적인 소탕 방식은 전례 없이 잔혹했다. 실종자 가운데 75%가 일터와 학교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영역인 가정에서 강제 연행되었다(CONADEP 1984, 17; Pion-Berlin & Lopez 1991, 64).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강제 납치, 고문과 같은 폭력 행위를 관행으로 일삼으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공포와 침묵의 문화, 그리고 사회적 단절과 분열을 확산시켰다(Perelli 1992, 424-425).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종되었는가? 어머니회는 그 수를 약 30,000명으로 추산했다(Bouvard 1994, 31-32; Feitlowitz 1998, 257).⁴⁾

2) 비델라의 이런 언급은 영국 언론인들과의 회견에서 나왔다(*La Nación*, December 18, 1977, 1, 18). 작가 페이트로위츠는 군부가 고문을 ‘집중 치료요법,’ 바다에 던져진 수감자들을 ‘물고기 밥’으로 지칭하는 ‘완곡어법’을 통해 비밀스런 폭력의 유산을 만들어냈음을 고발했다(Feitlowitz 1998, xi).

3) 군부 세력이 국가안보론과 자유 시장 경제 옹호론에 입각해 어떻게 특정 청년층과 노동자 집단에 집중적인 테러를 자행했는지에 대해선 Pion-Berlin & Lopez 1991, 68-76 참조.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의 공식보고서를 축약한 단행본 『눈
까 마스』(*Nunca Más*)에 따르면이라도 실종자는 최소한 8,960명에 이르
렀다. 어린이, 임산부, 청소년, 징집 군인, 장애인, 신부, 언론인, 노조
지도자, 정치 활동가와 같은 다양한 범주의 실종자 가운데 86%가 35
세 이하의 청년층이었고, 30% 가량이 여성이었고, 여성 실종자 중
10%가 임신 중이었다(CONADEP 1984, 294, 479-480). 실종자의 48%
가 블루칼라(30%)와 화이트칼라(18%) 노동자였는데, 노조 가입자의
실종 비율이 비노조원의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았다(Pion-Berlin &
Lopez 1991, 75-76). 그 밖의 피해자 중 21%가 학생, 10.7%가 전문직
종사자, 5.7%가 교사, 5%가 자영업자, 약 4%가 주부, 1%가 언론인,
0.3%가 사제나 수녀였으며, 복무 중인 병사도 2.5%에 이르렀다. 전
문직 종사자 중에는 심리학자, 정신 병리학자, 사회학자와 같은 ‘의
심스런 직업’의 소유자가 많았다(Suárez-Orozco 1992, 237). 더욱이 실
종자 가운데에는 라울 알라이스(Raúl Hugo Alais)를 비롯한 변호사
107명(CONADEP 1984, 431-434)과 지방 상공회의소 의장과 판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눈까 마스』는 육·해·공군, 그리고 경찰과 보안대가 관할하는 ‘추
악한 전쟁’의 비밀 수용소 340곳의 목록을 게재하면서 남성뿐만 아
니라 게릴라 조직과 관련이 없었던 임산부와 아이들까지 고문당했으
며 실종 사건 변호사와 인권운동 지도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
음을 밝혔다. 또한 납치와 고문 외에 군부 세력이 자행한 엽기적인
범죄를 거론했다. 납치나 고문 관련자들은 수감된 임산부가 출산한
영아나 납치된 부부의 어린 아이들을 일종의 ‘전리품’으로 보고, 군
부 체제와 가까운 불임 부부나 부유한 가정에 입양시켰다(Suárez
-Orozco 1992, 236-237). 강제 입양의 주도자들은 ‘좌익분자를 양성하
는 불온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떼어내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려 한 것이었다. 이는 내전 이후 스페인에서 선례를

4) <국제사면위원회>는 실종 사건을 15,000건 이상으로 파악했으며 1981년 아메리카
대륙의 언론 자유와 인권 상황을 증진시키기 위해 뉴욕에서 설립된 <아메리카 감시
위원회>(Americas Watch Committee)는 실종자 수를 약 15,000-22,000명으로 산정했다.

발견할 수 있는 심각한 탈취 행위이자 충격적인 방식의 인권유린이었다.⁵⁾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인들이 군부 독재의 억압을 겪으면서 침묵에 돌입한 반면, 실종자 어머니 14명은 ‘추악한 전쟁’이 한창인 1977년 5월 초 아르헨티나 독립의 상징 오월광장에 모여들어 “내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절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차원의 탐문과 수색을 통해 자식들을 찾아 헤맸으나 관계 부서로부터 늘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Fisher 1989, 27). 실종자의 어머니들은 군부로부터 ‘오월광장의 미치광이들’(Bousquet 1983, 58; Bouvard 1994, 79)이라고 조롱받았을 뿐 아니라 강압적인 군부통치에 맞서지 않은 ‘조용한 다수’로부터 외면당했다. 평범한 아르헨티나 인들은 자국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다고 납치, 고문, 실종에 대해 부인하거나 만일 납치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뭔가 불순한 행위에 연루되었을 것(por algo habra sido)’(Paolantonio 1997, 437; Jelin 2003, 54)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들을 납치했는가?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은 없었다. 당국은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형무소는 그들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재판부는 그들을 알지 못했고 단 한 명의 납치범도 체포되지 않았다. 단 한 군대의 비밀구치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며칠, 몇 주일, 몇 개월, 몇 년의 세월이 부모와 자식들의 의혹과 고통을 더하면서 흘러갔다. 이들은 희망 없는 기대 속에서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군부의 고급장교, 주교, 경찰 간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간청했다. 그러나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었. 점차 공포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퍼져갔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5)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루이스 푸엔소 감독의 아르헨티나 영화 <오피셜 스토리>(La Historia Oficial, 1985년)는 ‘추악한 전쟁’에 대한 무지와 침묵 속에 살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 알리시아의 의식 변화를 추적한다. 알리시아는 망명에서 돌아온 친구의 끔찍한 과거 경험을 듣고, 사랑하는 양녀 가비가 납치된 ‘불순분자’의 친자였음을 알게 된 뒤 ‘추악한 전쟁’을 미화해 온 ‘공식 역사’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연루된 부유한 남편과도 결별한다(Bortnik 1985). 한편 1977년 설립된 강제입양 피해자 모임 <오월광장 할머니회>(Asociación Civil Abuelas de Plaza de Mayo)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제입양아 400여 명 중 약 80명이 본래의 정체를 확인했다.

일지라도 끝없는 ‘마녀사냥’에 걸려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었다. 어떤 이들은 겁에 질려 위축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공포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다. 공포를 달래는 듯 낮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겠지, 탄압을 받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지”라고 중얼거렸으며, 실종자의 가족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쳐다보곤 했다(CONADEP 1984, 9).

이렇듯 귀책사유를 찾곤 하는 대중의 의혹이나 무관심속에서도 실종자의 어머니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Suárez-Orozco, 1992, 243-244).⁶⁾ 몇몇 지도급 활동가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회는 대다수 아르헨티나인들의 행동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었다. 실종자 어머니들이 오월광장을 회합 장소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이 광장이 대통령 집무실인 카사 로사다(Casa Rosada) 앞에 위치한 공공장소, 즉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치, 재정, 금융의 중심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Taylor 1997, 186).⁷⁾ 몇몇 어머니들은 1977년 4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광장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광장이 텅 비어 있었으므로 비텔라 대통령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금요일은 불길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날짜를 목요일로 바꾸었다. 회합 시각을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한 까닭은 그 즈음이 가사를 돌본 후 비교적 한가한 시간이었고 은행의 폐점 시간 전이어서 주변 거리에 많은 인파가 붐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Fisher, 1989, 28-29; Abreu Hernández 2002, 397). 어머니들에게 오월광장은 군인들의 노골적인 무력행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인 동시에 덮이기도 했

6) 물론 군사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때문에 주요 언론매체들은 어머니회의 활동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Femenia, 1987, 12-13).

7) 오월광장은 스페인의 식민통치 이래 도시의 중심이었다. 1580년 조성된 이 광장은 1810년 5월 25일 아르헨티나의 독립 선포를 통해 ‘해방공간’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 광장 주변에는 옛 관청(카빌도)과 성당,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정치·문화의 터전이 자리 잡았고 20세기 중반 이후 중앙은행과 재정경제부 같은 핵심적인 금융·경제 관련 기관이 들어섰다. 또한 1945년 10월 17일 이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후안 페론의 석방을 요구하며 당시 정권을 압박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덧입게 되었다(Podalsky 2000, 1163-1164).

다. 1977년 12월 모임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아수세나 데 비센티(Azucena Villaflor de Vicenti)가 실종된 것을 비롯해 군부의 탄압 역시 거세졌다.⁸⁾

1977년 4월 말 이래 2년 반 동안 오월광장의 독립기념 조형물 주위를 도는 조용한 행진을 통해 그 존재를 각인시킨 실종자 어머니들은 <정치적 이유로 실종되거나 구금된 자들의 친척 모임>이나 <인권 상임 회의>(APDH), <법과 사회연구소>(CELS), <평화와 정의 센터>(SERPAJ)와 같은 비정부 인권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소송과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1979년 8월 22일 트렐레우(Trelew) 학살 7주기 추모일에 정식으로 <오월광장 어머니회>를 발족시켰다(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2003, 27). 1977년 12월 800건 정도에 머물던 실종 사례 접수는 어머니회의 출범에 즈음해 약 4,000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979년 9월 약 3주 동안 <아메리카 인권 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 관계자들이 ‘추악한 전쟁’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방문했을 때에는 관련 증언을 위해 약 3,000명이 줄지어서기도 했다(Navarro 1989, 253). 이것은 ‘추악한 전쟁’의 실태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변모시킨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어머니회는 1979년 12월 대규모 거리 행진을 계기로 활동의 폭을 넓혔다. 어머니회는 희생자 가족의 회합을 넘어 점차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여러 세력과 정치적 연대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Bouvard 1994, 2). 그리하여 1980년 8월 중순에는 약 2,000명, 1982년에는 약 2,500여 회원을 규합하게 되었다(Navarro 1989, 251). 군부 세력이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뒤 1982년 7월 비뇨네(Reynaldo Bignone) 장군의 과

8) 아수세나 데 비센티를 납치한 이는 전직 해군 대위 알프레도 아스티스로 밝혀졌다. ‘금발머리 죽음의 천사’로 불린 아스티스는 ‘추악한 전쟁’ 당시 고문과 살인을 수차례 자행했으며 어머니회에 침투해 프락치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BBC News, 26 July 2003, “Argentina’s long wait for justice,” <http://news.bbc.co.uk/go/pr/ft/-/1/hi/world/americas/3098489.stm>; 1990년 프랑스 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프랑스 출신 수녀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아스티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BBC News, 2 September, 2003, “Call for Argentine amnesty clarity,”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3202843.stm>

도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어머니회의 행진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더불어 불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1982년 12월 약 10만 명이 참가한 행진을 비롯해 몇 차례 대규모 저항 집회를 통해 어머니회는 실종자 진상 규명, 학살 책임자 처벌과 정치범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어머니회의 활동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회는 비폭력적 직접행동을 통해 대안적인 저항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좌파의 AAA’로 불리며 모든 비폭력 운동을 ‘개량주의’로 몰아붙인 몬토네로스의 비타협적 분파주의가 다른 저항 세력과의 연합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었다면(Hodges 1991, 216), 어머니회의 비폭력적 저항은 여러 세력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Hodges 1991, 202). 또한 어머니회는 기존 정당의 틀 밖에서 시작되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위상을 지니게 되었는데, 양육과 평화, 협력, 상호애정과 같은 어머니의 가치와 정치적 활동을 융합시킴으로써 위계적 복종과 막강한 물리력에 의존하는 군부 정권에 맞서 독특하면서도 줄기찬 투쟁을 전개했다(Navarro 1989, 254). 이들은 자녀의 실종이 가져온 개인적인 절망을 일종의 공적인 힘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군부 독재의 탄압에 맞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다른 세력이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냈다.

어머니회는 민주화 이행기에도 학살과 실종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타협적인 투쟁의 목표로 유지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보복이 아닌 정의의 회복이었으며,⁹⁾ 1984년부터 어머니회는 그들의 진상규명 의지를 ‘(자식을) 산 채로 돌려 달라’(Aparición con vida)와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처벌하라’(Castigo a todos los culpables)라는 구호로 요약했다(Paolantonio 1997, 445; Foss & Domenici 2001, 245).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실종을 둘러싼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 그리고 실종자들을 기억하는 일이 소중했다. 그러므로 어머니회는 ‘추악한 전쟁’의 책임자들을 군사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려는 알폰신 대

9) “Mothers of Plaza de Mayo”(January 26, 1984), <http://www.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E55.pdf>

통령의 구상에 반대했다. 나아가 인권 옹호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 아르헨티나 사회의 개혁에 필요한 의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마다 3월 24일 쿠데타의 날을 ‘기억의 날’로 정하고, 실종된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뿐 아니라 정의와 처벌에 대한 호소와 분노를 넘어 평화와 연대에 기초해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교육, 노동, 사법부 개혁, 각종 차별 반대와 같은 보편적인 쟁점과 연결시키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성찰의 문화가 형성되는 데 기여했다(Jelin 1994, 39).

III.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란과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분열

알폰신 정부의 공식적인 청산 작업이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하자, 1985년 4월 어머니회는 주요 정당, 운동 단체들과 함께 범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약 50,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이즈음 알폰신 대통령이 몇몇 고위 군 장교와 만나 인권재판이 곧 종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실제로 당시 군부 지도자들은 알폰신에게 일괄사면을 선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Bouvard 1994, 162). 같은 해 10월 몬토네로스 운동의 지도자 리카르도 오브레곤(Ricardo Obregón)이 불법 조직 가담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그와 유사한 몇몇 판결이 잇따르자 어머니회는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저항을 선언했다. 점차 어머니회는 알폰신의 급진당 정부에게도 거북스런 존재가 되었다(Hodges 1991, 254, 256).

기소종결법과 강제 명령에 따른 복종법의 제정, 이를 통한 정치적 해법 모색에 대해 어머니회는 비타협적인 태도로 반발하면서 담론과 실행에서 더욱 급진적인 분위기를 띠었다. 어머니회는 알폰신 정부가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은 가톨릭교회에게 버림받고 사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여기면서 더욱 강력하게 군부를 비판했다(Steiner 2003, 159).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어머니회 내부의 갈등

과 균열을 초래했다. 1986년 1월 어머니회의 회장을 선출하게 되었을 때, 에베 데 보나피니(Hebé Pastor de Bonafini)의 급진적인 태도¹⁰⁾와 지휘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일부 회원들은 어머니회를 이탈해 곧 레네 에펠바움(René Epelbaum)을 중심으로 <오월광장 어머니회 설립자 노선>(Madres de Plaza de Mayo-Línea Fundadora, 이하 설립자 노선으로 약칭)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다. 보나피니는 어머니회를 정부에 맞서 시위하고 저항하는 단체로 규정했으나 설립자 노선 측은 어머니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정치적 틀 내에서 활동하길 원했다. 그리하여 어머니회는 군부 독재의 강압과 사회 전반의 침묵에 맞서 투쟁한 것처럼 민선정부의 정치적 타협과 공식적인 청산의 종결에도 저항했다. 설립자 노선 역시 기소종결법이나 강제 명령에 따른 복종법에 반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알폰신 정부에 기대를 거는 편이었다(Bouvard 1994, 163). 실상 두 집단 사이의 긴장과 분열의 조짐은 이미 1983년 12월 알폰신 행정부의 등장 때부터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설립자 노선을 조직한 이들은 알폰신과의 협상을 바라면서 한층 더 온건한 노선을 취하고자 했다(Diago 1988, 193-195; Taylor 1997, 283).

이런 노선의 차이는 각자가 지닌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어머니회에 남은 대다수가 노동계급 출신인 데 반해 설립자 노선 측은 대체로 중·상층 출신이 많았다.¹¹⁾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학자들은 보나피니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대체로 설립자 노선의 견해를 지지하는 편이었다. 설립자 노선의 구성원들은 보나피니의 강력한 영향력에 우려를 나타냈기에 새로운 단체에는 회장직을 두지 않고 수평적인 구조를 유지하려 했다.¹²⁾ 비폭력적, 비서열적 단체를

10)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면, 보나피니는 두 아들의 실종 뒤 정치와는 무관한 보통 가정 주부에서 '카스트로를 지지하는 혁명파'로 극적인 변신을 체험했다(Osiel 2001, 127).

11) 어머니회의 회장 보나피니는 공장 노동자의 아내로서 대학교 출신 노조 활동가였던 두 아들을 잃었고, 설립자 노선의 마리아 아델라 안토콜레즈는 외교관의 아내로서 정치범들을 위해 일하던 변호사 아들을 잃었다(Simpson and Bennett 1985, 153-154; Schirmer 1989, 7). 분열 당시 어머니회 회원 중 54%는 노동계급에 속했으며 고등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대체로 집밖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Taylor 1997, 185, 187).

12) 설립자 노선은 현재 약 20-30명의 어머니들이 함께 하는 소형 조직으로 남아 있다.

표방한 설립자 노선은 실종자들의 운명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자 했다. 1999년 10월 데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도 설립자 노선의 회원들은 <오월광장 할머니회>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와 협력하길 원했지만 어머니회는 이런 협력이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의와 명예를 드높이기보다는 은폐시킬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Foss & Domenici 2001, 238-239).

무엇보다 두 집단은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적 성향의 강은 여부 외에도 진상규명의 한계와 의미, 보상과 기념 같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상이한 접근방식을 드러냈다. 또한 납치, 실종자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들의 정체성 규정, 그리고 ‘산 채로 돌려 달라’나 ‘죄를 범한 자 모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둘러싸고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런 차이가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더욱 크게 불거지면서 어머니회는 내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 유해 발굴 논란

1982년 10월 말 처음으로 실종자들이 묻힌 집단 무덤의 흔적이 드러나자 아르헨티나 인들은 경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 그랑부르 공원묘지에서 88곳에 이르는 무덤과 약 400구에 이르는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었다. 곧이어 더 많은 무덤과 총탄 자국이 난 두개골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납치된 자들이 살해되었을지 모른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이나 친지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대단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발굴 작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

보나피니의 어머니회가 주도하는 목요 시위(오후 3시 30분)에도 매번 참여하지만 자녀의 사진이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어머니회의 행렬 뒤편에서 자녀의 이름이 적힌 사진을 들고 조용히 행진한다(<평화와 정의 센터>(Servicio Paz y Justicia)의 반델라에르(Juan de Wandelaer, 45세), 설립자 노선의 바라바예(Mirta Acuña de Baravalle, 79세)와의 대담). 바라바예는 1977년 4월 오월광장에 처음 모였던 14명 중 한 사람이며, <평화와 정의 센터>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평신도 초교파 조직으로 대표적인 비정부 인권 단체이다(CONADEP 1984, 388; Jelin 1994, 40).

어졌다. 실종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 인권 단체들은 당연히 발굴 작업에 환영을 표시했다. 그동안 실종된 자녀들의 죽음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군부 통치자들이 제정한 두 가지 법, 즉 <실종으로 인한 사망 추정법>과 <주민 부재 시 사회보장 혜택법>(1979년 12월)을 강력히 반대한 어머니회도 1982년 10월 당시엔 발굴 작업을 통해 실종자들에게 이름과 신원을 되돌려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무덤이 발견되고 군부의 억압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지만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후속 유해 발굴을 통해 드러난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민선정부가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어머니회는 과연 정부가 군부의 폭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더욱이 알폰신 정부가 ‘추악한 전쟁’을 주도한 사령관 9명을 형법이 아닌 군법에 따라 재판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부의 방침과 사법적 해법에 대한 어머니회의 불신은 증폭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 발굴 작업에 대한 공방은 더욱 가열되었다. 보나피니는 지지부진한 인권 재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실종된 자녀들의 생물학적 죽음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해 반대했다. 그것은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애도의 물결이 진상규명 투쟁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해 발굴로 조성된 슬픔과 애도 속에 실종자 가족들이 체념하고 탈정치화하길 바라는 정부 측의 사악한 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나피니는 지속적인 애도 과정이 자칫 어머니회의 연대를 깨뜨리고 타협적 태도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었다(Robben 2000, 92). 이런 심리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어머니회는 실종된 자녀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라 ‘실종자의 어머니’로 남길 원했다(Taylor 1997, 189; Thornton 2000, 285). 보나피니는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은 알폰신 정부에 항의하며 자녀들을 살린 채로 기억을 유지하고자 했으며 발굴 작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실종을 둘러싼 진실이 규명되어야 함을 역설했다(Femenía 1987,

16).

발굴 작업에 찬성하는 이들은 명예로운 장례를 원한 반면 어머니회는 실종자들이 지녔던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원했다(Robben 2000, 91). 조직의 분열 이후 설립자 노선 측은 유해 발굴 작업에 대해 반대하는 어머니회를 비판하면서, 발굴된 유골들이 고문과 암살의 결정적인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나피니를 지지하는 이들은 망각에 돌입한 듯 보이는 수많은 아르헨티나 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감정적 상처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 놓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또한 심각한 상처는 드러내어 “빛과 신선한 공기에 노출시켜야 적절히 낫는다”고 생각하면서 독재시절 국민의 일부가 겪은 폭력행위를 국가가 제대로 떠맡아야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어머니회는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암살자들이 누구인지, 왜 납치하고 사라지게 만들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나피니는 조직의 분열 직후 두 가지 신념을 더욱 가다듬어 어머니회의 지침으로 삼았다. 하나는 자신들이 자녀들의 이상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난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아르헨티나 현대사 속에서 정치적 억압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 또한 미래 세대의 어머니로서 ‘영원히 아이를 품는’ 존재라는 것이었다(Foss & Domenici 2001, 246). 이에 따라 어머니회는 몇 가지 특별법을 통해 사법적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알폰신과 메넴의 정치적 타협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군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적인 필요가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Jelin 1994, 47, 49). 어머니회는 가치의 전도(顛倒)를 추호도 수용하지 않았다. 어머니회는 메넴 대통령에게 ‘추악한 전쟁’ 기간 중 살해된 모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서를 보냈고, 1991년 두 번째 사면 뒤 메넴이 어머니회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대해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하자 보나피니는 “대통령이야말로 조

국에 대한 반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¹³⁾

2. 정부의 보상법과 추모 공원을 둘러싼 논란

어머니회는 발굴 작업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면서 보나피니가 강조한 대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자녀들의 정치적 신념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납치당한 자녀 대부분이 ‘추악한 전쟁’ 중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Fisher 1989, 153), 진상 규명을 통해 상흔이 치유되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어떤 물질적 보상에 대해 거부할 것임을 천명했다. 1991년 11월 27일 제정된 정부의 <전(前) 정치범에 대한 보상법>은 두 어머니회 사이를 더욱 벌려놓았다. 이 보상법은 정치적 성격의 수감자를 비롯해 ‘추악한 전쟁’ 동안 피해를 입은 민간인, 예컨대 1983년 12월 10일 이전 행정부에 의해 수배된 자나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유가 박탈되거나 법에 의거해 처벌받은 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기준을 마련한 것이었다. 반면 설립자 노선은 정부 차원의 보상금이 구금이나 실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수용하는 것은 매춘행위가 아니”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았다.¹⁴⁾ 어머니회는 이런 유형의 보상법을 대량학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설립자

13) 보나피니는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전직 군사령관들에 대한) 사면을 명령함으로써 먼저 우리의 존경을 잃었다”고 대응했다(Página/12 viernes 17 de mayo de 1991, 10).

14) “지불은 만기일 내에 6회 분할되며, 그 중 첫 번째 지불은 승인 후 60일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 총액은 승인 후 지불이 이행된 날까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 정해진다. 지불은 승인 전월(前月)의 물가 지수에 상응해서 이루어지며, 잔액에 연 6%의 이자가 더해져 각 분기의 지불액이 정해진다. 효율적인 지불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수혜자는 이를 사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통고나 수속절차, 사전 항의의 필요 없이, 판결의 이행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본 법에 따른 예상 보상 총액은 23.982 법 조항에 의거한다”(7조)를 비롯한 보상법에 관해선, <역사와 기억> 사이트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중 번역 사료 21번 참조.

노선과 다른 인권 단체들의 견해에 반대했다.

또한 ‘추악한 전쟁’을 상징하는 ‘기억의 터’ 해군기술학교(Escuela Mecánica de la Armada, ESM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곳은 해군이 ‘불순분자’ 척결에 앞장서 군부 내의 위상을 높이려는 마세라의 구상이 담겨 있는 건물로서 약 340개에 이르는 비밀 구금수용소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곳이었다(CONADEP 1984, 81, 479). 1997년 12월 메넴 정부는 약 4,000여 명이 숨겨간 이 비밀 구금과 고문, 학살의 대명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미래로 약진하려는 취지를 담아 국민 화합 기념 공원을 세우려 했지만 이 개조 계획은 어머니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¹⁵⁾ 어머니회는 이곳이 ‘추악한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처럼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1998년 1월 어머니회는 군부의 만행을 고발하는 일종의 박물관, 억압의 상징으로서 해군기술학교를 그대로 보존할 것을 주장해 결국 정부의 공원 조성 계획을 무산시켰다.

대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차원에서 추모공원과 기념물 조성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비 승인과 열띤 청문회를 거친 뒤 1998년 7월 공원 조성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미 조직된 <국가폭력 희생자를 위한 기념위원회>의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몇몇 인권단체와 정당을 대표하는 시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선 기념공원과 조형물의 예정지로 해군기술학교가 아니라 대학도시(Ciudad Universitaria)의 라플라타(La Plata) 강둑을 선정했다. 이곳은 1995년 3월 전 해군 대위 실링고(Adolfo F. Scilingo)가 고백한 바대로 추악한 사체 유기의 현장이었다(Verbitsky 1996, 204; Comisión Por Monumento 2003, 60).¹⁶⁾ 하지만 조형물에 실종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15) BBC News, 8 January, 1998, “Argentina to demolish former torture center,”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45661.stm>

16) 실링고는 해군기술학교의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1976-1978년 동안 살해당했거나 의식을 잃은 수감자들을 한 번에 15-20명 씩 비행기에 태워 바다에 던져 버리는 끔찍한 임무를 맡은 바 있다고 1995년 3월 언론인 오라시오 베르비츠키에게 고백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처리한 이들은 줄잡아 1,750여 명에 이르렀다(*The Economist*, 25 March, 1995, 46).

것인가에 대해선 어머니회와 설립자 노선 사이에 견해가 갈렸다. 어머니회는 실종자 개인의 이름보다는 정의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실종자들의 이름이 없는 기념탑을 주장한 반면, 설립자 노선은 그들의 자녀 이름을 새겨 넣길 원했다.¹⁷⁾

IV. 망각에 맞선 기억의 투쟁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더욱 많은 이들을 저항의 대열에 몰아넣었을 때, 어머니회의 관심은 실종자 문제를 넘어 각종 인권 관련 주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어머니회는 군부 독재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인으로서 망각을 강요한 억압적인 국가폭력에 대해 금지시된 기억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화 이행기에도 침묵, 부인, 무관심과 상이한 기억의 정치적 활용에 도전했다.

사실 ‘추악한 전쟁’ 당시에도 ‘두 악마론’(teoría de los dos demonios)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군부 독재가 자행한 국가 폭력과 좌파 테러리즘을 병치시키면서, 군부 독재 지속에 대한 책임의 절반을 좌파 게릴라 세력에게도 지우려는 논리였다(Cerruti 2001, 16; 셀비 2001, 25). ‘두 악마론’에 따르면 좌파 게릴라 조직의 테러리즘이 <아르헨티나 반공동맹>과 같은 극우 무장단체의 폭력을 가중시켰고, 이런 폭력과 혼란이 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게릴라 세력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그다지 큰 위협이나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부인했지만 군부는 ‘좌익 테러분자’의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인권 단체 지도자들은 좌파 게릴라의 수가 200명을 넘지

17) 이런 두 어머니회의 견해차는 단체의 상징인 흰색 두건(원래는 기저귀감을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머니회의 두건에는 단체의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반면, 설립자 노선의 두건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있다(설립자 노선의 바라바예와의 대답). 두 어머니 단체의 상징인 흰색 두건과 구호, 광장 선회행진(ronda), 실루엣과 사진이 지니는 제유법(提喻法)적 의미에 관해선 Mellibovsky 1997, 83-84, 88, 116; Foss & Domenici 2001, 244-251 참조.

않았다고 추산한 반면, 군 지도부는 줄곧 30,000명설을 주장해왔다(Osiel 1986, 172). 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가족을 중심으로 <‘불순 분자의 테러’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가족 모임>(FAMUS, Familiares de los Muertos por la Subversión)의 활동이 펼쳐지기도 했다.¹⁸⁾ ‘두 악마론’은 아르헨티나인들의 집단기억 형성에 ‘추악한 전쟁’ 시기를 넘어 적어도 1970년대 초 좌·우파 세력의 갈등과 폭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후속 연구에 따르면 좌파 세력의 공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엇비슷한 두 세력 사이에 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군부의 ‘비대칭적인 타격’이 있었을 뿐이었다(Andersen 1993, 2-3).

또 민선정부의 공식적인 청산 시도가 정치적 타협과 사면으로 귀결되면서, 특히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실종자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뚜렷하게 진전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진실규명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춰지면서 아르헨티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식상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혹독한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겐 과거사청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류 문학비평가 코시안시치(Vlady Kociancich)는 “이제 군부통치와 내란 시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신세대 젊은 작가들도 많아졌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그들은 우리의 과거보다 마이크로소프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글을 쓸 때에는 그것에 관한 기억을 수수께끼나 신비로운 것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그려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겐 그 일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일어나긴 했는데, 이미 끝난 것이란 말이다”¹⁹⁾라며 비극적 시대에 대한 기억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들은 진실규명 행위를 유보시켰으며, 다른 이들은 과거사는 과거사일 뿐이라고 주

18) “FAMUS(Families of Victims of Terrorism)(March 19, 1984), <http://www.foia.state.gov/documents/Argentina/0000AE76.pdf>

19) <http://www.bbc.co.uk/worldservice/arts/features/latinamericanwords/argentina/today.shtml>

장하거나 심지어 ‘추악한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했다(Jelin 1994, 48).

분열 이전에도 어머니회의 투쟁은 사실 여론의 대대적인 성원을 받지 못했다. 1985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머니회의 활동에 대해 약 59%가 부정적이었다(Schirmer 1989, 11). 그렇지만 1995년 3월 실링고가 ‘추악한 전쟁’의 학살 가담자 중 최초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공개했을 때, 설립자 노선 소속의 마리아 안토콜레츠(당시 83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사회적 무관심과 망각 속에 그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묻히지 않길 희망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있은 후 그들은 더 이상 이걸 단지 고통당한 어떤 어머니의 울부짖음일 뿐이라고 말할 순 없을 거예요”(Time, March 27, 1995, 47). 실링고의 증언은 ‘해군기술헌교의 침묵 협정’을 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곧 육군참모총장 발사(Martín Antonio Balza) 장군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의 공개적인 고백이 이어지기도 했다(Taylor 1997, 256; Arditti 1999, 159).

그렇다면 진실규명과 정의의 요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실 속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주의적 접근일 뿐인가? 진실규명에 근거한 심판과 가해자의 반성 없이 과연 사회통합은 가능한가? 민선정부의 지도자들은 인권재판이 민주화 이행기의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에서 차츰 이탈하면서 협약과 협상에 의해 정치적 대안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어머니회의 사례는 그런 정치적 타협 속에서 과거사정리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으며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간이 흐른 뒤 그 상처가 예술적 상징화로부터 개인적 복수에 이르기까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Jelin 1994, 51). 어머니회는 과거사에 대한 기억과 정의의 회복을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윤리적 형식의 구축으로 연결시키는가가 여전히 아르헨티나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주었다.²⁰⁾ 『오피셜 스토리』

20) 어머니회는 2006년 1월 25일 오후 6시부터 하루 동안 1979년부터 27년에 걸쳐 진행

가 웅변하듯, 일방적인 과거 전유(專有)에 근거한 기억의 강요나 공식적인 역사 서술은 그 유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는 후속세대가 비판적 사유와 반성능력을 키우도록 돕기는커녕 진지한 과거대면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며, 그들을 슬한 논란의 수렁에 밀어 넣는 격이다.

아울러 어머니회의 활동은 과거사청산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억의 보존과 기록보관소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남아메리카의 인권침해 관련 기록보관소는 대체로 피해자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의 노력의 산물이었으며 이는 민주화 이행기에 국가위원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가 해산된 뒤 내무부 산하에 인권국(局)(Subsecretaría de Derechos Humanos)이 창설되었고 이는 곧 <국가 기억보관소>(Archivo Nacional de la Memoria)로 대체되었다. 1992년 11월에는 <국가 신원권리 위원회>(Comisión Nacional por el Derecho a la Identidad, CONADI)가 설치되어 <오월광장 할머니회>와 일정한 협력을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²¹⁾

V. 맺는 말

이제까지 ‘추악한 전쟁’이 남긴 실종자 문제를 둘러싸고 아르헨티

해온 ‘24시간 연속 저항 침묵 행진’의 마지막 행사를 가졌다. 어머니회는 회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키르츠네르 정부가 들어선 뒤 과거 군부독재자들에 대한 면소권이 파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사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행진 중단으로 꼽았다. 보나피니는 “키르츠네르가 새로운 문을 열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바랄 수 없던 많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머니회 운동의 원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연례행사는 종결되지만 자녀들의 행방을 묻고자 하는 유서 깊은 목요 시위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BBC News, 26 January, 2006, “Last March for Argentine Mothers,” <http://news.bbc.co.uk/2/hi/americas/4647150.stm>

21) 전국 유전자 데이터 은행의 설립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법 개정과 같은 <오월광장 할머니회> 활동의 성과에 관해선 Arditti 1999, 165-168 참조.

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가 즐기치게 주장한 비타협적인 진상규명 요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이것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민선정부 차원의 과거사청산 시도가 군부 세력과의 정치적 타협으로 일단락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아르헨티나에선 사회통합이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어머니회는 진실규명을 수반하지 않은 정치적 타협과 사면을 비판하면서 진실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소수의 피해자 집단을 대변했다. ‘추악한 전쟁’ 기간에 태동한 어머니회는 군부의 강압적 통치에 의해 억압당했거나 공포 체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한 이들이 형성한 침묵의 카르텔에 도전하면서 자녀들의 실종에 항의하며 매주 정기적으로 광장에 모여들었다. 자녀들의 실종이 가져다 준 개인적인 절망을 딛고 새로운 연대를 통해 군부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른 어머니회는 기존 정당의 틀 밖에서 주례 집회를 가지며 거리의 저항을 제도화시켰으며 오월광장을 정치공간으로, 여타 정치세력을 위한 연대의 무대로 변모시켰다. 민주화 이행기에 접어들어 어머니회는 다양한 기억과 추모 방식이 제기됨에 따라 갈등과 분열을 겪기도 했지만 오늘날까지 아르헨티나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꾸준히 활약해왔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종자의 어머니’로 남길 원하는 어머니회의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어머니회는 모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출발해 다양한 쟁점에 주목하는 세계적인 인권단체로 성장했다. 정부 주도의 과거사 처리가 대체로 진상규명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최소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로 흘러간 경향이 있지만 어머니회는 이런 타협을 거부한 채 진지한 화해를 요구해왔다. 어머니회는 오랜 기간에 걸친 외로운 투쟁을 통해 화해의 핵심은 정치적 해법의 모색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을 전제로 한 신원(伸冤)과 사회 통합이라는 점을 웅변해 주었으며 2003년 이라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정부가 ‘추악한 전쟁’의 청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데 필요한 불씨를 제공했다.

어머니회의 활동에서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처벌과 배

상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 즉 과거사성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사성찰이란 역사인식, 가치와 윤리의 문제이자 동시에 공식, 비공식적 기억의 문제이며, 또한 특정 당사자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한 사회 구성원 전부, 나아가 후속 세대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사청산을 단지 일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정치,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여러 국가의 사례는 우리에게 과거사청산이 단번에 성취될 수 없으며, 언제라도 과거사와 관련해 새로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안병직 외 2005). 아울러 과거사청산 과정이 과거사를 대상으로 한 ‘기억의 정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역사적 진실의 규명과 정의의 회복이라는 가치가 단지 도덕적 규범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특정 집단의 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문화적 기초라는 점 또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Argentines have come to terms with their tragic past, especially the issue of the disappeared sprung out of the Dirty War period, a time of military state terror. The case of *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a group of mothers of the *desaparecidos*, shows to what extent the efforts to cure and mourn the victims as well as inquiring into the past affairs, punishment, and recompense was crucial in opening a new phase of a certain nation's history. Since April 1977, the *Madres* have fought against various efforts to bury and forget the tragic past by the civilian governments as well as the military regime, and demonstrated a great capacity to maintain their

political and ethical demands of ‘Back alive’(Aparición con vida).

The arguments over forgetting and remembering the Dirty War in Argentina have raged since it ended in 1983. While trying to resolve their grief in an uncommon way, the *Madres* have both grown up as a new being with their children’s political ideal and produced a positive social change by transforming their grief into a new energy based on peace and solidarity. Despite their internal conflict and eventual separation surrounding several issues of the *desaparecidos*, their struggle of memory reminds us of how significant the tasks to elucidate the historical verity could be.

It should be noted that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cannot be accomplished in a single round. Rather, ‘dealing with the pas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inual and persistent process that faces with new issu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past, ethical matters, and official and unofficial memories over time. It is related to not only several concerned parties but also whole elements in a society or the next generation in general. It also needs to be recognized as future-oriented efforts based on critical reflection and thoughtful understanding of the tragic past. Therefore, the process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has to include any efforts to remedy wounds and trauma inherited from painful pages of the past in order to grope for appropriate cultural identities as well as the activities to disclose the past.

Key Words: Argentina,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desaparecidos, 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 Memory / 아르헨티나, 과 거사청산, 실종자, <오월광장 어머니회>, 기억

논문투고일자: 2006. 05. 01

심사완료일자: 2006. 05. 09

게재확정일자: 2006. 05. 14

참고문헌

1. 구술 면담과 1차 자료(정부 문서, 신문·방송 기사)

<오월광장 어머니회 설립자 노선>(Madres de Plaza de Mayo-Línea Fundadora), 미르타 아쿠냐 데 바라바예(Mirta Acuña de Baravalle, 79세), 2004년 2월 18일

<역사와 기억> 사이트 http://past.snu.ac.kr/02_document/Argentina/Argentina.html

<평화와 정의 센터>(Servicio Paz y Justicia), 후안 데 반델라에르(Juan de Wandelaer, 45세 벨기에인), 2004년 2월 17일

BBC News, World, Americas, 2000-2006, <http://news.bbc.co.uk/1/hi/world/americas>

Comisión Por Monumento a las Víctimas del Terrorismo de Estado, Proyecto Parque de la memoria, Buenos Aires, 2003.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1984), Nunca Más, Buenos Aires: Eudeba, Universidad de Buenos Aires. (송기도 역(1988), “눈까 마스: 아르헨티나 군 부독재의 실상”, 서당)

La Nación, 1977-1989, Buenos Aires.

Página/12, 1991, Buenos Aires.

The U.S. Department of State,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State Argentina Declassification Project(1975-1984) 총 4,677건(件)의 문서, <http://foia.state.gov/SearchColls/CollsSearch.asp>

2. 연구서와 논문

박구병(2005), 「‘눈까 마스’와 ‘침묵협정’ 사이: 심판대에 선 아르헨티나 군부의 ‘더러운 전쟁’」,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8, No. 2, pp. 57-84.

안병직 외(2005), 『세계의 과거사청산』, 푸른역사.

헨리 셀비(2001),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억」, 민주주의와

- 인권 Vol. 1, No. 2, pp. 3-33.
- Abreu Hernández, Viviana M.(2002) “The Mothers of La Plaza de Mayo: A Peace Movement,” *Peace & Change*, Vol. 27, No. 3, pp. 385-411.
- Andersen, Martin Edwin(1993), *Dossier Secreto: Argentina's Desaparecidos and the Myth of the “Dirty War,”* Boulder: Westview Press.
- Arditti, Rita(1999), *Searching for Life: The Grandmothers of the Plaza De Mayo and the Disappeared Children of Argent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2003), *Historia de las Madres de Plaza de Mayo*, Buenos Aires: Ediciones Madres de Plaza de Mayo.
- Bortnik, Aída(1985), *La historia oficial: libro cinematográfico*, Buenos Aires: Ediciones de la Urraca (한명준 역(1989), 『오피셜 스토리』, 모아).
- Bousquet, Jean Pierre(1983), *Las locas de Plaza de Mayo*, Buenos Aires: El Cid Editor.
- Bouvard, Marguerite Guzman(1994), *Revolutionizing Motherhood: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Wilmington: Scholarly Resources Inc.
- Cerruti, Gabriela(2001), “La historia de la memoria”, *Puentes*, Vol. 1, No. 3, pp. 14-25.
- Diago, Alejandro(1988), *Hebé, memoria y esperanza: conversando con las Madres de Plaza de Mayo*, Buenos Aires: Ediciones Dialéctica.
- Feijoó, María del Carmen, and Marcela María Alejandra Nari(1994), “Women and Democracy in Argentina,” in Jane S. Jaquette(ed.), *The Women’s Movement in Latin America: Participation and Democracy*, Boulder: Westview, pp. 109-129.
- Feitlowitz, Marguerite(1998), *A Lexicon of Terror: Argentina and the*

- Legacies of Tor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menía, Nora Amalia(1987), "Argentina's Mothers of Plaza de Mayo: The Mourning Process from Junta to Democracy," *Feminist Studies*, Vol. 13, No. 1, pp. 9-18.
- Fisher, Jo(1989), *Mothers of the Disappeared*, Boston: South End Press.
- Foss, Karen A. & Kathy L. Domenici(2001), "Haunting Argentina: Synecdoche in the Protests of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Quarterly Journal of Speech*, Vol. 87, No. 3, pp. 237-258.
- Hodges, Donald C.(1991), *Argentina's "Dirty War": An Intellectual Biograph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Jelin, Elizabeth(1994), "The Politics of Memory: The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Democracy in Argentin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1, No. 2, pp. 38-58.
- _____ (2003), *State Repression and the Labors of Memory*, (trans. by Judy Rein and Marcial Godoy-Anatív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ellibovsky, Matilde(1997), *Circle of Love over Death: Testimonies of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trans. by Matthew & Maria Prose), Willimantic, Curbstone Press.
- Navarro, Marysa(1989), "The Personal Is Political: Las Madres de Plaza de Mayo," in Susan Eckstein(ed.), *Power and Popular Protest: Latin American Social Move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41-258.
- Osiel, Mark J.(1986), "The Making of Human Rights Policy in Argentina: the Impact of Ideas and Interests on Legal Conflict,"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18, No. 1, pp. 135-180.
- _____ (2001), "Constructing Subversion in Argentina's Dirty War," *Representations*, No. 75, pp. 119-158.

- Paolantonio, Mario Di(1997), “Argentina after the ‘Dirty War’: Reading the Limit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lternatives*, Vol. 22, No. 4, pp. 433-465.
- Perelli, Carina(1992), “Settling Accounts with Blood Memory: The Case of Argentina,” *Social Research*, Vol. 59, No. 2, 1992, pp. 415-451.
- Pion-Berln, David, and George A. Lopez(1991), “Of Victims and Executioners: Argentine State Terror, 1975-1979,”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1, pp. 63-86.
- Podalsky, Laura(2000), “Plaza de Mayo,” in Daniel Balderston, Mike Gonzalez, and Ana M. Lopez(eds.),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ultur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1163-1164.
- Robben, Antonius C.G.M.(2000) “The Assault on Basic Trust: Disappearance, Protest, and Reburial in Argentina,” in Antonius G.G.M. Robben & Marcelo M. Suárez-Orozco(eds.), *Cultures under Siege: Collective Violence and Trau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0-101.
- Schirmer, Jennifer G.(1989), “‘Those Who Die for Life Cannot Be Called Dead’: Women and Human Rights Protest in Latin America,” *Feminist Review*, No. 32, pp. 3-29.
- Simpson, John and Jana Bennett(1985), *The Disappeared and the Mothers of the Plaza: The Story of the 11,000 Argentinians Who Vanished*, New York: St. Martin’s Press.
- Steiner, Patricia Owen(2003), *Hebe’s Story: The Inspiring Rise and Dismaying Evolution of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Philadelphia: Xlibris.
- Suárez-Orozco, Marcelo M.(1992), “A Grammar of Terror: Psychocultural Responses to State Terrorism in Dirty War and Post-Dirty War Argentina,” in Carolyn Nordstrom and Joann Martin(eds.), *The*

Paths to Domination, Resistance, and Terror,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19-259.

Taylor, Diana(1997), *Disappearing Acts: Spectacles of Gender and Nationalism in Argentina's "Dirty War,"*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Thornton, Sally Webb(2000), "Grief Transformed: The Mothers of the Plaza de Mayo," *Omega*, Vol. 41, No. 4, pp. 279-289.

Verbitsky, Horacio(1996), *The Flight: Confessions of an Argentine Dirty Warrior*, (trans. by Esther Allen), New York: The New Press.